



Process Records

2018.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아카이빙북



Process Records

이 책은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의
과정과 결과 일부를 담은 아카이빙북이다.

2권 제목인 아카이브의 A를 동시에 쓰되
서로의 반영이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는 점에서
소문자 a를 활용했다.

대문자 A의 아카이브가 규정된 대명사격이라면
소문자 a의 아카이브는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영역의 아카이브를 상징하고,
보편적인 의미¹로 다가가려는 의도다.

1 주로 소문자 알파벳은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 보편적이고, 덜 특징적인 말을 할 때 사용한다.

(출처 <http://dictionary.cambridge.org>)

“with a small "c", "d", etc.” : used to say something is more general or less extreme
than the usual meaning: She is deeply conservative with a small "c" (= has traditional values,
rather than being a member or supporter of the Conservative Party).

목차

records

경청의 고현학	6
Cases	14
Case 1	금천구마을아카이브TF 16
Case 2	디자인스튜디오203 23
Case 3	마을에숨어 30
Case 4	매거진충무로 37
Case 5	사진아카이브연구소 41
Case 6	정말기록당 48



목차

records

Case 7	창신송인도시재생협동조합	56
Case 8	해방촌마을기록단	61
Case 9	행정과 시민 사이	70
고민문장록		78
서울기록원		88

records

경청의 고현학¹

서울기록은 서울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을 총칭하며, 당대의 서울시의 정체성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기록으로 정의한다. 서울기록은 기존의 유형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확장한다. 서울기록을 구성하는 요소는 시정기록과 시민기록으로 나뉘며, 시민기록은 협치기록과 민간기록으로 나뉜다.²

‘서울기록’의 정의에 ‘시민기록’이 포함된 일은 이번 프로젝트의 근거가 되었다. 서울기록원이 설립과 함께 시정기록뿐만 아니라 협치기록과 민간기록을 함께 보존³ 한다는 방침을 수립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고민한 것은 인간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서울기록원과 연결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서로 다른 영역의 개성과 장점을 인정하며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록물이 생산된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협력’과 ‘연대’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가능할까?

‘획득’과 ‘양도’의 입장으로 민간영역을 대하지 않아야 한다. 협력을 위한 제안이 ‘통제’와 ‘패권’으로 느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진정한 ‘협력’의 방향과 가치를 함께 논의하며 찾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서로를대하는 방식.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치 사랑이 그 사람의 안부를 걱정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되듯이 말이다. 제1원칙은 그렇게 ‘듣는 일’ 즉 경청이 되었다.

1 고현학(modernology, 考現學) : 변동이 격심한 현대의 풍속세대(風俗世態)를 조사·기록하여 장래의 발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학문. 고고학·민속학이 과거 세대(世代)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사학 범주에 속한다면, 고현학은 현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회학 범주에 속하므로 '풍속세대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

2 2016년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사업 연구보고서

3 시정기록은 서울시가 한 일을 기록하고 설명하는 종이 문서, 사진, 디지털 문서, 동영상 등을 말한다. 시 행정과 관련된 시정기록이다. 각종 행사에서 수집한 박물관(물건)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과 준영구 기록물, 영구 기록물이 서울기록원에 보존·관리된다. 이와 함께 시민기록도 서울기록물로 함께 보존할 계획이다. 출처 <서울&> 2018년 3월 15일 조영삼 서울기록원 원장 인터뷰

만난 사람들

프로젝트 A를 진행하며 91개의 협치영역 기록활동과 61개의 민간영역 기록활동⁴을 발굴할 수 있었다. 실제 구체적인 논의에 이르는 면담과 협약까지 도달한 단체의 수는 이보다 적다. 하나의 단체와 접촉하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차례 미팅을 거쳤고, 협약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경청의 결과

사업기간 내 일부 단체들과는
협약으로 이어지는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

(1) 공공 : 13개 면담, 8개 협약 예정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재생정책기획관,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사업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역사편찬원,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서울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금천문화재단

(2) 협치 : 4개 면담, 3개 협약 예정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혁신센터,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

(3) 민간 : 15개 면담, 6개 협약 진행
해방촌마을기록단, 마을예술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 기억발전소, 정말기록당, 성북신나, 디자인스튜디오203, 사진아카이브연구소, 매거진 충무로, 창신송인도시재생협동조합, 금천마을아카이브TF(금천IN, 마을인교육, 산아래문화학교, 금천마을방송국, 시흥5동 오동통)

4 아카이빙 북에서는 공공영역 기록활동 발굴사례와 협약사례는 소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내용은 연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소개되어있다. 이는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링크 소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왜 경청일까?

금천구마을아카이브TF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금천마을방송국
금천문화재단
금천IN
마을인교육
디자인스튜디오203
마을에숨어

매거진충무로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정말기록당
창신승인도시재생협동조합
해방촌마을기록단
행정과 시민 사이



협치/민간영역의 이야기를 듣고 _____
정리해보았다. 전반적으로 _____
저장공간, 교육 지원, 법적 자문, _____
공통적이었고 하나로 묶을 수 _____
있었다. 특히 민간영역의 _____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라인 저장공간, 물리적
보존 처리 등에 대한 요구가
없는 다양한 개별적 기대가
요구사항은 매우 다채롭다.

records



Cases



Case 1

금천구마을아카이브TF¹

마을기록에 대한 고민
여럿이 모여 방법을 찾는다.

1) 정식 명칭은 아니다. 금천구마을공동체센터를 주축으로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TF팀을 구성해 마을공동체기록관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실전에서 할 수 있는 팁,
출판물이나 영상기록물을
만들기까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팁이 필요하죠.

첫 만남.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는 이미 많은 단체의 활동가들이 와 있었다.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금천마을방송국, 금천IN, 금천문화재단, 마을인교육, 산아래문화학교, 시흥5동마을신문 등 공공, 협치,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마을기록’이기 때문이다. 금천IN의 이성호 편집장은 그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을 소개하며 “우리의 마을기록을 어떻게 할지 동네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마을기록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소규모,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을 지속하기도 어렵고, 결과물도 흩어지기 쉽다. 금천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어떻게 마을기록을 해나갈지, 아카이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2017년부터 계속해오고 있었다. 그와 함께 마을공동체기록관의 개관을 목표로 준비단계를 밟아가는 중이다.

기록과 아카이브를 하며 단계적으로 느끼는 문제들, 기대하는 지원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 마련. 금천구마을아카이브TF팀으로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꽤 오래도록 지역에서 마을기록을 직접 남기고, 정리하는 일을 해왔지만 민간기록 활동의 고민과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전문적인 아카이브는 그 벽이 높게만 느껴진다고 했다. 공통적으로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기록물을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 보존할 것인가’였다. 민간에서 기록활동을 하며 겪는 어려움으로 금천구마을아카이브TF팀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료와 기록 찾기의 어려움

민간에서 기록활동을 하던 사람이나 단체가 활동을 접으면 그 자료도 함께 사라진다. 각자 보관하고 관리하다보니 자료가 모두 흩어져있고 결과적으로 소실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 향토자료나 행정자료 등은 민간에게 자료를 공유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이 어렵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일단 그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② 보관 장소의 부재

물리적 보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서버 관리나 유지를 지속하는 일 역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영상작업을 하는 마을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기록물의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

③ 검색과 자료 관리의 어려움

마을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키워드나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플랫폼도 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을에서 생산된 자료들은 메일이나 SNS(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를 통해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만드는 주체들이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유했던 자료가 사라지거나 용량이 압축되어

보관되고, 카테고리별 분류가 불가능해서 주고받은 자료를 재확인하거나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④ 기록의 범위와 선택의 기준

도대체 어디까지가 기록일까? 기록물에 대한 정의, 범위가 천차만별로 해석된다. 또한 마을에서 각자의 활동결과물로 수많은 기록이 쏟아지는데 이 모든 걸 모을 수도 없고, 보관 주체도 없다.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기록물 선택의 기준, 한계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 고민의 말들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개인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활동을 접으면 이 자료가 없어지는 거죠.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보관하니까 단체가 문을 닫으면 기록이 사라지는 거예요.

민간에서 활동하는 기록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을공동체기록관을 만든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모든 기관에 배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구마다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에 민간지원 기록관리사가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요.

서울기록원 활용설명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로, 초등학교 고학년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전문 용어를 쓰고자 한다면 순화된 말로 설명을 달아주면 좋겠어요.

공동체, 마을 안에서 데이터가 공유되고 활용되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는 만들었지만 잘 활용되나 싶어요. 1000명이 넘는 주민이 주로 밴드로 소통하거든요. 밴드에 자신들의 활동이나 행사를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죠. 지역의 문제나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요. 그런데 밴드는 지난 자료의 아카이빙이 안되고, 자료의 용량이 축소되면서 나중에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 실질적인 활용과 자료를 모으는 부분이 고민 되요.”
남현숙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Case 2

디자인스튜디오203

콘텐츠로서의 기록

“서울시에서 예전에 진행한 아카이브 교육을 받으러 간적이 있어요. 두세 번
가다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실전에서 할 수 있는 팁, 출판물이나 영상기록물을 만들기까지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팁이 필요하죠.

**개인이 갖고 있거나 구청 어딘가에 처박힌 자료들을 도서관이나 기록관에
등록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행정자료는 시보, 구보, 의회보
등을 만들며 자료화하는데 민간은 그런 게 없으니까요. 금천에서 만드는
책자를 취합한다던지... 하지만 그 작업을 하려면 우선 민간에서 어디까지를
‘자료’로 볼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할 것 같아요.”
이성호 (금천IN)

“온라인에서 기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마을기록관이 필요해요. 금천의 향토사나 마을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볼 곳도 없고 자료는 흩어져있어요. 마을이야기, 문화유산, 향토사 등의
자료를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공간이 있으면 해요.”
오현애 (마을인교육)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구조화 되어야
말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쌓여만 있어서는
절대 소비되지 않습니다.
정보와 기술.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나름의 역할이
있어요. 소비되고 사람과
연일 수 있는 정보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홍대 앞 터줏대감 <스트리트h>의 산실, 디자인스튜디오203은 지난 10년 동안 공간, 사람, 문화를 매개로 홍대 앞의 변화를 묵묵히 기록해왔다. 매달 꾸준히 홍대 앞의 기록을 남긴 셉이니 이들이 만들어낸 <스트리트h>를 보면 홍대의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가늠할 수 있다. 홍대 앞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공연장, 전시장, 카페, 식당 등)이 태어나고 사라진 흔적들이 잡지에 모두 담겨있는 것이다. 또한 인포그래픽 포스터와 지역 지도 등의 형태로 홍대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작업들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 있고 매력적인 자료이자 기록물이다. 그 안에는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자료를 해석하고 스토리텔링한 콘텐츠가 담겨있다. 이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 성과물이다. 전적으로 이 작업에 매달리는 전문가들이 이러한 콘텐츠의 제작과 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애초에 공공기금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닌 것이다.

이번에 면담을 진행한 다른 민간영역의 기록 주체와 디자인스튜디오 203의 가장 큰 차이라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립비용을 마련하는 구조, 즉 사기업의 형태를 띠는 점이다. 민간영역 기록주체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마을미디어 활동처럼 지역 기반의 주민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기록화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예술과 연계한 프로젝트로 지자체나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록화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자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구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이런 지역 기록들이 수익을 내는 효자 상품도 아니다. 오히려 디자인 작업이나 출판물 판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록 작업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민간영역의 기록 주체를 만나면서 수익 모델을 지닌 단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민간영역의 기록 주체들 중 일부 적극적인 단체나 활동가들은 기록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나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판로를 모색하고, 단체의 성향을 바꾸어 나가려 노력하는 추세다. 기존의 지원사업에 의지해서 기록화 활동을 해나가는 일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자체적 지역 기록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이러한 활동을 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맞물린 탓이다. 이런 식의 자체 수익구조를 지닌 민간영역 기록 주체들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협력할 때 어떤 고민을 해야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이번 면담에서도 그러한 질문이 던져졌다. “어렵게

모아놓은 기록과 정보가 적절한 대가 없이 공공재가 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더욱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 것이다.



① 비용의 문제

이렇게 10년의 시간 동안 정보를 모으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 문제는 비용이다. 예산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다른 수익을 통해 이런 지역 기록물을 만들기 위해 비용을 쓰는 구조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매번 간신히 만들었다. 홈페이지도 제대로 만들고 싶은데 쉽지 않다.

② 공공기록물 정보 부족의 문제

서울사진아카이브나 구청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아서 함께 활용할 때가 있다. 그런데 사진의 출처나 맥락이 없다. 활용하고 싶어도 그 사진은 그냥 어느 지역 사진일 뿐이다. 사진을 통해 이야기해줄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지역관련 옛날 사진이나 공공기록물도 많지 않고, 스토리를 쓸 수 있으려면 정보가 풍부해야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

③ 자체 자료 관리와 유지

서버를 활용한다. 레이어드된 서버를 두 번 째 교체해서 쓰고 있다. 컴퓨터 1세대나 다름없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 외장하드 가지고는 안 된다. 서버도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스트리트h> 발행월 기준으로 저장되어 있다. 사진 이름은 장소로

지정했다. 이미지 DB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다.



☞ 고민의 말들

“서울기록원에서 많은 정보를 디지털로 정리할텐데, **미래를 위해 남겨지는 것만이 기록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과거의 정보를 현재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물성적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작업을 병행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모니터로 보라. 검색해서 보라. 이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접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구조화 되어야 말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쌓여만 있어서는 절대 소비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정보와 기술. 그것이 무엇이든 다 나름의 역할이 있어요. 소비되고 사람과 엮일 수 있는 정보화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Case 3

마을에숨어

우리가 쌓아갈
기록의 가치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도
맥락이 계속 변해갑니다.
[마을에숨어]는 개인의
활동에서 집단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수집하고 싶은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집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2018년 6월, 한창 철거 중인 둔촌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¹ 건너편에 위치한 ‘마을에숨어’ 사무실에서 이인규 대표와 안근철 팀장을 만났다. 둔촌주공의 동네 고양이들을 안전하게 이주하는 ‘둔촌냥이’ 프로젝트와 사무실 이사, 수집된 기록물 정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고향’이던 둔촌주공이 재건축되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은 이인규 대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공간에 대한 기억을 기록한 것이 ‘마을에숨어’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2013년 5월,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프로젝트의 첫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이인규 대표는 “기록에 집중한 방향과 맥락이 혼자의 기록이 아닌 여럿의 기록, 주민 활동으로 계속 변해가는 ‘마을에숨어’ 활동을 소개했다.

1 1970년대 한강 이남 개발 붐과 함께 강동대로를 사이에 두고 송파구와 인접한 강동구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섰다. 1980년 완공된 둔촌주공 아파트는 둔촌동 59만4000㎡ 대지 위에 4개 단지, 143개동, 5,930가구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였다. 2009년 12월에 설립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추진해 2015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7년부터 이주가 시작되어 2018년 8월에야 이주가 마무리 됐다.

두 번째 책에서는 주민들의 기고를 받았고, 세 번째 책을 만들 당시에는 안전 문제로 둔촌주공의 상징이던 놀이터와 ‘기린 미끄럼틀’이 철거된다는 소식에 놀이터를 기억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도 했다. 네 번째 책은 자신의 집을 기억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람들이 모여 클라우드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페이스북의 역할도 컸다.

주민 뿐 아니라 예술가,작가, 기록가, 연구자 등 둔촌주공을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사진작가 준열와 함께 단지 내의 나무와 건축물을 사진으로 담았고, 영상작가 라야와는 아파트와 집 안의 풍경을 영상으로 기록해 영화 <집의 시간들>을 기획할 수 있었다. 안근철 팀장의 합류로 둔촌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유물과 재건축조합²에서 보관하고 있던 관리사무소의 기록물을 정리하고 수집할 수 있었다.

“혼자 시작한 활동이 점차 넓어지면서 우리가 수집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집한” 프로젝트가 되어왔다. ‘마을에숨어’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 가운데 하나다.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에숨어’는 우리의 기록중에 무엇을 남겨야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할 것인지,

2 원래 명칭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록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물음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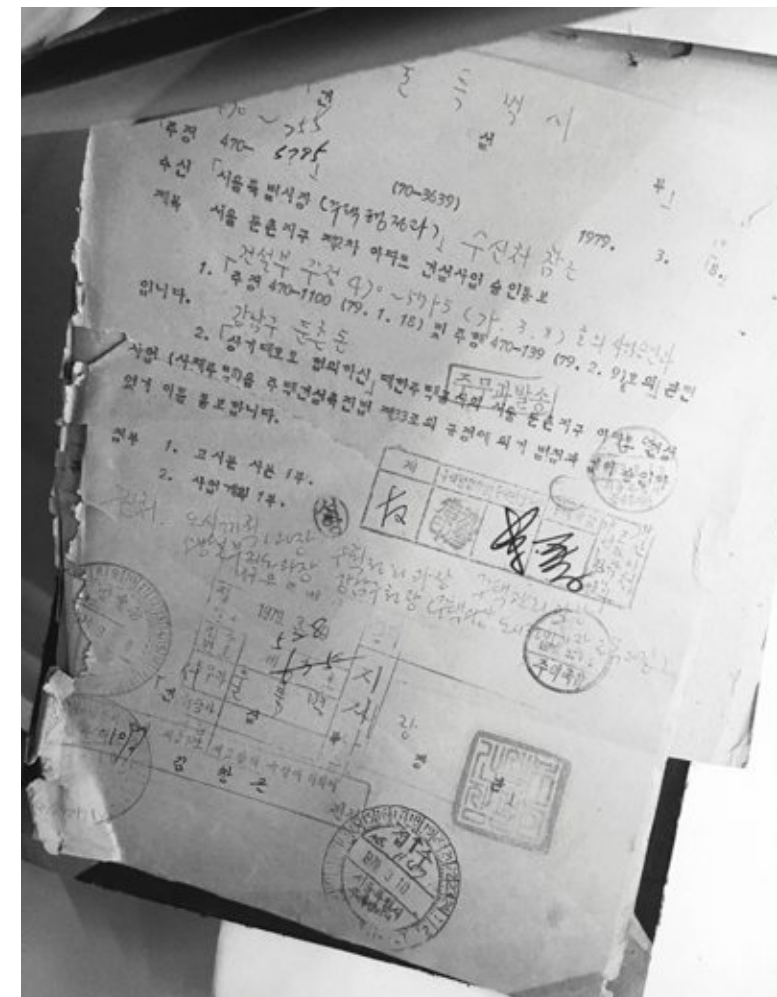


❶ 무엇이 기록일까?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할까?

개인의 기록을 수집할 때 ‘내가 생각한 돈촌은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데...’라는 생각을 한다. ‘잘’ 찍은 사진도 함께 남겨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수집 현장에서 기린 미끄럼틀의 조각, 온도를 기록한 종이 등 수많은 유물들을 마주하며 지금 수집하지 않으면 사라질 기록물 앞에서 ‘무엇을 남겨야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❷ 우리의 기록을 어떻게 보존·관리해야할까?

공동의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없애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이 없다. 기준으로 잘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유권도 애매하다. 입주자 대표 회의를 녹음한 카세트테이프가 남겨져 두었는데 오래되어 재생이 될지 확인이 필요하다. 재생이 되었을 때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모인 것인지 등의 사전정보가 없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후대를 위한다면 남겨진 기록들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생각해야하는 건 아닐까?



Case 4

매거진 총무로

일터를
기록하는 마음

👁 고민의 말들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도 맥락이 계속 변해갑니다. [마을에숨어]는 개인의 활동에서 집단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어요. 또 우리가 수집하고 싶은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집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재건축조합과 관리사무소에 있던 유물들은 보존할 의지가 없어
서울기록원이 이관해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하기에는 버거운
변환작업도 필요한 유물들도 있어요. 후대를 위해 변환했으면 해요.”

“네트워크에 꼭 끼야할까요? 공기관에 하는 것에 끼야하는가요? 여기에
끼는 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묻고 싶어요. 우리가 기관에서 생각한
것만큼의 여력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고, 함께 큐레이팅을 해나갈 수 있다면, 또 장기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물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으면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만들어온 여럿의 기록을 막 없애도 되는지에 대한 관리기준.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죠. **공동의 기록물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누군가는 기록해 뒤야
하지 않을까, 이 지역이
보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했었죠.
그렇게 시작한
「매거진 총무로」에는
느닷없는 기사도 있고
아마추어의 글이지만
지역을 아카이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매거진 충무로』는 충무로 인쇄업 종사자들의 모임이 주축이 되어 시작됐다. 마을 아카이브가 주민 위주로 진행된다면 『매거진 충무로』는 일터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진행한다. 구성원은 인쇄업 이외에 출판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축인 이란 편집장의 경우도 그렇다.

‘인쇄도 문화’라는 점을 알리고 싶어 시작한 일. 그러다보니 인쇄와 출판 그리고 그 을지로, 충무로 일대의 다양한 지역 이야기와 문화를 아우르는 잡지가 됐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 이 지역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개인의 열망이 충무로의 아카이브를 가능하게 했다. 인쇄거리의 기억과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바탕에 있는 때문이다.

『매거진 충무로』는 무가지 형태로 현재 8호까지 출판됐다. 1~4호까지는 이란 편집장이 자비로 출간했고 5~7호는 공공의 지원¹을 받아 책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8호는 다시 자비 출판으로 진행했다. 작업을 하며

1 5~6호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업지원금
7호 : 서울시 역사도심과 지원 주민제안사업

느끼는 어려움은 출판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 제작비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이 일을 지속하려면 원고료, 취재비 확보가 중요한데 현재는 거의 자비 부담, 참가자들의 재능기부 등에 의존한다. 이러다보니 “아, 이래서 마을잡지가 지속되지 않고, 지원사업이 없으면 유지가 안되는구나²”라는 걸 느낀다고 했다. 잡지는 계속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그걸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2 『기록으로 보는 마을공동체 이야기』, 32쪽, 기억발전소, 2016년



Case 5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서울기록원 차별화의 실마리
사진아카이브를 통해 얻다.

☞ 고민의 말들

“인쇄소 사장님들 만나면 힘이 빠져요. 우리는 망해가고 있고 인쇄업은 사양사업이라고 하죠. 이야기를 듣다보면 왜 본인들이 먼저 안 좋게 생각하는지 속상해요. 그래서 인쇄문화라는 말도 만들어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재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인쇄거리가 소중하고 역사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자는 거죠.”

“저는 끝내 인쇄거리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때 중구청에서 지역이 낙후했으니 다 밀고 호텔을 짓는다는 소문이 팽배했거든요. **그때 ‘누군가는 기록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 지역이 보전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계속 했었죠.**”

“『매거진 총무로』에는 느닷없는 기사도 있고 아마추어의 글이지만 지역을 아카이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매체라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마을마다 매체가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 생각하고 재조명하는 것처럼.**”

아카이브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담당자에 따라,
정책이나 경제적 상황 등
외부 조건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라지니까
패배의식이 팽배해요.
이걸 해서 뭐하나.
사라질텐데...

사진아카이브연구소가 다른 민간영역 협력대상과의 차이가 있다면 연구의 측면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¹를 정리하고 해석하려는 구성원들의 성향이 묻어난다.

사진아카이브연구소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메타미디어로서의 사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개항 이후부터 근현대까지의 연구소에서 다루는 사진은 그 폭이 방대하다. 사진은 연구와 활용도가 높은 만큼 서울기록원에서 행정기록물 중 사진의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에서 사진아카이브연구소와 서울기록원이 공유할 지점은 ‘기록, 문헌을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해석의 영역으로 확장시켜야한다’는 점이다. 보존의 형태를 넘어 해석의 작업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

1 현재 일제강점기 시절 근대사진 목록은 15,000여 건, 전시 카달로그는 1,200종 정도다. 그 외에 근현대를 아우르는 빈티지 사진, 엽서, 사진첩, 졸업앨범, 잡지, 책자 등 정리할 엄두를 못내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당위를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물론 충분히 사유하고 자료를 이해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 기반의 아카이브즈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충실한 자료조사와 연구다. 축적된 자료의 해석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연구의 시점과 방향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것이라 한 번의 해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어떤 경우보다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다.

규모 차이는 있겠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공통적이고 고질적인 고민이 아닌가 한다. 행정기록의 카달로그를 만드는 본연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시민기록과의 연계점을 찾고 그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울기록원의 입장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① 아카이브 사업 지속성의 중요성

아카이브는 한번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공공영역 민간영역 할 것 없이 지속이 잘 되지 않는다. 업데이트도 잘 안되고 활용도 안되고 홈페이지는 너무 무겁다. 애써 구축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기록물 해석, 구체적 내용 정리 등 후속작업이 필요한데 초기 버전에 멈춰있는 경우가 많다. 관리담당자가 바뀌거나 조직개편이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아카이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지속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② 디지털 아카이브의 한계

사실 디지털은 대안이 못된다. 차안 정도다. 제대로 사진아카이브를 한다고 할 때 원본필름, 인화된 자료를 함께 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버관리를 멈추고, 전원을 끄는 순간 디지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정책 기조와 관리자의 입장 등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병행되어야 한다.

③ 분류 및 메타데이터 정리의 특수성

목록을 만드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인력과 예산이 없는 연구소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힘에 부칠 때가 많다. 연구와 해석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단계로 넘어가기도 전에 지치는 것. 하지만 분류와 목록화는 누가 대신할 수 없다. 아카이브 주체가 목록을 만들고 분류하고 메타데이터를 채우지 않으면 그 자료들은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없다. 한 장의 사진에서 수 십 개의 메타 정보를 추출하는데, 기록학에서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보까지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인화지 자체의 역사성(물성) 있더라고 아키비스트가 그러한 정보를 모두 이해하고 분류, 목록화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④ 사진아카이브의 특수성

사진은 메타미디어이다. 사진에 담긴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한 명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사진아카이브는 기록관리 차원에서만 이야기해서 안 된다. 90년대 후반 동경대에서 진행한 협동과정은 좋은 사례다. 동경대 사료편찬소에 소장된 제국주의 시대 유리건판을 가지고 아카이빙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됐다. 일본근대사, 사진기록학, 사진재료학, 일본사진사, 서양사진사가 인접학문으로 연계했다고 들었다. 이처럼 같은 사진 한 장도 분야마다 다르게 읽혀진다.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지니는 동시에 사진 매체를 넘어서는 게 사진아카이브다.



👉 고민의 말들

“민간에서 사진아카이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서울기록원에 기대하는 점은 **‘조건 없는 수장고’**가 아닐까요? 개인 수장고를 받기란 공공기관의 특성상 선정 기준, 절차 등 거쳐야할 과정이 많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집이나 연구소에 비치된 자료들의 변색과 퇴색에 걱정이 큼니다. 개인이 양질의 보관 조건을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니깐요.”

“아카이브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담당자에 따라, **정책이나 경제적 상황 등 외부 조건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라지니까** 패배의식이 팽배해요. 이걸 해서 뭐하나. 사라질텐데…”

“동경대 동경사료편찬위원회는 90년대 초중반 디지털 붐과 함께 메이지 전후의 중요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에 대한 보장, 수명 등을 검증하기 어려우니 오히려 이제는 영인본을 만드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해요.** 복본을 두 벌 만들어 하나는 보존용, 하나는 활용용으로 쓴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정석이 아닐까요? 연구소도 그렇고 디지털 자료만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작은 사이즈라도 아날로그 프린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개인이나 민간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죠.”

“각 박물관의 사진아카이브를 담당하는 아키비스트나 학예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어요. 서울기록원이 그런 허브 역할을 하면 좋죠. 디지털 시대에 그런 역할만 충실히 해도 민간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지닌 자료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사라지는 중요한 자료가 많을 겁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요. 개인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쉽게 전달해주는 캠페인을 서울기록원에서 해주면 어떨까요? 기록물 보존관리 기준이 있지만 일반인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보존환경을 제안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아카이브 문화를 확산시키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ase 6

정말기록당

주민의 기억과 기록을 더듬어
동네의 의미를 찾아가다.

행정에서 주민이 참여해
기록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은
옛날이야기를 해주는 소스
제공자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기록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주제와 관심을 펼칠 수 있는
주민 공론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민 위주의 아카이브,
기록 제도나 사업 같은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기록당은 주민 위주의 마을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 모인 주민들의 네트워크로, '정릉마을기록주민이야기마당'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마을 기록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마을 아카이브를 실험하며 '마을기록을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정리할 것인지'를 찾아가고 있다. 최연희 씨는 "정릉은 제대로 마을의 이야기를 찾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 다양한 콘텐츠로 변주하고 그럴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진 거의 유일한 동네일 거예요."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연희 씨를 처음 만나 그간의 활동과 고민들을 나누며 주민과 행정의 역할을 넘나들며 고민의 넓이와 깊이를 키워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주축 멤버와의 두 번의 미팅, 한 번의 네트워크 회의에 참관해 내린 결론은 활동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데 마을 코디네이터, 기록사업단, 마을계획단, 도서관, 문화재단, 아카이브연구자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기록활동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서울기록원이 주민들의 활동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아닐까.

2017년 당시 마을코디네이터이던 최연희, 2012년부터 정릉의 기억과 기록을 모아 전시와 축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정릉마을기록사업단

단장 전미희가 주축이 되어 정릉 4개 동 주민들 간의 느슨한 연대모임인 정릉마을네트워크(이하 정말넷)와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정말기록당의 시작이었다. 여러 단체들의 활동과 마을기록을 연표 형태로 모아 전시를 기획하고, 마을기록가 강좌 등을 꾸려가고 있다.

정말기록당에게 마을 기록이란 “각자가 관심 있는 걸 하는데 그걸 모아” 가는 행위다. 행정에서 마을기록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역할은 기록을 제공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은 기록을 말하고 상호소통하며 고착되지 않은 역사를 만들어감과 동시에 만들고 적극적으로 소비해,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갈 주인이다. 그럼에도 주민들끼리 마을 아카이브를 지속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사업이나 예산의 문제, 전문적인 기록을 만들어가거나 흠어진 자료를 모을 제도나 장치가 없어 주민이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① 기억 매개자의 역할

보다 나은 마을 아카이브를 위해서는 기억을 가진 사람들과 기록가, 전문가를 연결해줄 수 있는 기억 매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마을 기록의 리소스를 가진 기억 제공자를 발굴해 활동가를 연결하고, 활동가와 전문가를 연결해 보다 나은 기록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간에 프로젝트나 사업으로 연결해줄 사람이 있다면 마을 아카이브를 지속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줄 것이다.

② 사적기록이 공적기록이 될 때

대개 마을 기록은 지원사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지원사업의 경우 저작권이 활동가에게 있지 않고 기록이 위임되지 않아 활동가가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기록을 만들고 소비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줄 개인정보, 저작권, 초상권 등을 획득하는 절차나 교육이 필요하다. 또 기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기억 제공자들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지만, 자료가 무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문제가 불어졌을 때 주민 단위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지원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기관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③ 지자체의 기록물 공유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기억과 기록을 모아 발간한 결과물들이 공유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조례 형태로 가능하면 좋겠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만든 기록은 활동과 전혀 다른 행정명으로 설정되어 주민들이 찾기 힘들다. 또한 자료를 만들기까지의 다양한 기획안이나 진행과정의 문서들, 수집된 자료들의 원본은 거의 보존되지 않고 최종 보고 문서로 한글 파일에 삽입되어 저장된다. 사진의 경우는 용량이 적어져서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④ 민간의 기록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의 필요성

기록을 더 잘하기 위해 시니어들이 어려워하는 문서 제작 등에 대한 교육이나 기록물 정리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나 교육을 이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민간기록을 이해하고, 함께 기록하고 의논해나갈 수 있는 자문단도 필요하다.



고민의 말들

“수십 년 간 행정은 행정 편의 위주로 주민 참여 사업을 해왔어요. 결과물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행정 위주의 일정에 맞춰 보여야 했죠.”

“**동네는 관계망이에요.** 정릉 마을을 아카이빙하는 민관단체가 네트워크를 맺고 활동을 하니까 서로 얼굴 보고 아는 사이가 되면서 신뢰를 쌓고 지속적인 모임이 되고, 그러니까 주민단체 활동이 쉬워졌죠.”

“행정에서 주민 참여해 기록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은 옛날이야기를 해주는 소스 제공자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기록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주제와 관심을 펼칠 수 있는 주민 공론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민 위주의 아카이브, 기록 제도나 사업 같은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관심 있는 걸 하는데 그걸 모아보니 마을 기록이 되더라고요.** 아직 실험하는 단계이고 아카이브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마을기록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기록을 모두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모두가 누리는 것에 대해 합의부터 해야해요.**”

“아카이브를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기억을 위주로 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13살 아이가 겪은 5년의 동네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가거든요. **사라지는 기억을 빨리 수집하자는 필요가 우선시 되면 그런 기억들 또한 사라지게 될 거예요.**”



Case 7

창신송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기록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고민

기본적으로는 동기부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공에서
기록해 두면 좋을 일이지만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것도,
그것도 플랫폼에 맞게
가공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되죠.

창신송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에는 도시재생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역주민의 모임이 2018년 지역주민들이 출자해 전국 1호 지역재생 기업(CRC)¹을 설립했다. 주민들과 함께 집수리, 공공시설 관리 등과 같이 주민 스스로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창신송인 도시재생 지원센터’²에서 협동조합으로 함께 해온 두 담당자, 손경자 기획운영실장과 김규동 팀장은 실무 차원의 기록 관리 한계를 말한다.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컴퓨터 하드, 외장하드, 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를 사용해 협동조합의 업무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을 정리하며 기념관과 백서를 만들어 업무의 개별 기록을 넘어선 과정과 맥락을 남겨놓고자 한다. 체계적인 기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능하게

- 1 지역재생기업이란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뒤 지역사회의 공유자산을 활용해 기업적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발전시켜 나가는 주민 조직이다.
- 2 창신송인 지역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서울시의 마중물사업, 즉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역 중심의 자생적 재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한 초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으로,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운영하였다.

하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① 담당자의 동기부여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담당자가 기록을 장기적으로 보관하겠다는 욕구와 필요,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기록을 보관 정리하는 업무는 달갑지 않았다. 다량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분류하기도 어려웠다. 그간의 활동의 맥락을 남겨두기 위해 백서나 기념관을 통해 충분히 남겨놓고자 한다.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것은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공공기록으로서 개별 자료들을 모두 남긴다는 번거롭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 크게 동의되지 않는다. 기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메리트가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② 개인정보와 초상권의 문제

협동조합의 기록은 주민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기록이 좋은 취지, 홍보의 차원에서는 공유될 수 있겠지만, 생각지 못한 민감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초상권이나 개인정보가 특히 그렇다. 기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메리트가 무엇일지로 설득하거나 민감한 정보일 때 바로 삭제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Case 8

해방촌마을기록단

마을을 기록하는 일은
권리의 문제

👁 고민의 말들

“기록을 정리한다는 건 사실은 일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이니까. 센터를 하면서도 기록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게 사실은 별로 달갑지 않은 업무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록들 정리하고, 폴더로만 다 넣었지, 도저히 분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동기부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공에서 기록해 두면 좋을 일이지만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것도, 그것도 플랫폼에 맞게 가공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되죠.**”

“사진 같으면 초상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갖고는 있고, 필요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대 시민 서비스로 공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주민들과 오갔던 기록들이 공개가 되면 불편해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취지는 좋지만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기록원과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해보는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립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오히려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진짜 가치 있는 지점이 뭔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맞춤형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면 좋지 않을까
해요. 마치 주치의처럼
치료해주는 일이에요.

해방촌마을기록단은 말 그대로 해방촌¹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2016년 창단해 지금까지 꾸준히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공동의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한다. 이주민의 역사로 대변되는 해방촌에 새롭게 들어온 또 다른 이주민의 ‘주민-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것은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래된 가게를 오가며 일상을 영위하는 일이다.

해방촌마을기록단은 2014년 네평학교에서 시작됐다. 당시 해방촌 신흥시장 실측 작업을 하면서 인문사회조사를 함께 진행했는데 그때 주민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네평학교를 만들었다. 해방촌에 들어와 산지 6년, 이제는 진짜 동네 주민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건축 기반의 활동에서 시작해 마을조사로 이어져 지금에 이른 허길수 대표, 심수림 선생은 기록과 마을 주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마을 안에서 내가 배제되지 않고 주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기록이 아닐까요? 그래서 기록을 계속 해야 한다고 봐요.”

1 1945년 광복과 함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또 북쪽에서 월남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온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어 해방촌이라 불리게 되었다.

처음 해방촌마을기록단의 시작을 알리며 기획단을 구성한 후 수집단은 모집²을 통해 구성했다. 해방촌을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자발적으로 기록의 주제와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해왔다. 이 지역의 변화 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2017년 대비 신흥시장 오거리 근방 300미터 안에 편의점만 일곱 개가 생겼다. 미디어에 노출이 많아지고 이곳저곳 맛집으로 소문난 곳들이 늘면서 예전부터 있던 오랜 가게들이 아니라 유명인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늘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한 장소에서 10년, 20년 장사하던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간다. 당장 해방촌마을기록단이 쓰고 있는 공간도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형편³이었다.

2 해방촌 마을기록단

1기 (2016.06 ~ 2017.02) : 기획단(13명), 수집단(25명), 해방촌 마을기록단

2기 (2017.02~현재) : 기획단(9명)

3 5월 23일 해방촌마을기록단 허길수 대표와 1차 미팅, 8월 28일 허길수, 심수림 대표와 2차 미팅을 진행했다. 1차 미팅 당시 신흥시장 2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허길수 대표가 조만간 이사를 해야한다며 걱정을 했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인근에 사무실을 얻어 이사를 한 상태였다. 해방촌마을기록단은 도시재생지가 상업공간으로 성장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었다.

사라지는 모든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막상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록했던 대상과 풍경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들. 해방촌마을기록단은 기록이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치가 만들어져 버린 현실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신이 서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되돌이킬 수 없는 오늘을 사는 것. 해방촌마을 기록단에게 기록이 지니는 의미는 그 언저리 어딘가에 닿아있다.

❶ 지원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

각종 지원사업이 본연의 의미에 맞게 대상을 찾고, 파트너로 함께 가는 일이 드물다. 이미 잘 갖춰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쉽게 찾아낼 수 있거나 행정적으로 가까운 단체를 선정해서 커뮤니티를 다시 만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을 지원해준다는 일은 복합적인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런 지원이 오히려 본래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자립심의 틀을 깨트려서도 안된다.

❷ 기록,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

기록을 한다는 건 결국 어떤 관점을 가진다는 의미다.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권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마을 기록은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여준다. 기록이 권리가 되는 거다. 요즘은 주민을 구분한다. 건물주 아니면 주민이 아니다. 권력이 생기는 지점, 이해관계가 생기는 지점에 가면 결국 주민은 모두 건물주다. 하지만 기록을 통해 내가 배제되지 않고 주민으로 살 수 있는 권리,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❸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가치

사라지는 모든 게 가치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록했던 대상들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만든 가치가 아니지만 가치가 만들어져버렸다. 신흥시장의 변화만큼이나 사라진 것들이 많다. 해방촌의 중요한 상징이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사라졌다.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사라지더라. 시장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저것들을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다. 사진도, 이야기도 없다면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



☞ 고민의 말들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봐야하고 자립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오히려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진짜 가치 있는 지점이 뭔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맞춤형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면 좋지 않을까 해요. 지원을 통해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것. 마치 주치의처럼 치료해주는 일이에요.”

“서울기록원에서 준비한 양식을 살펴봤는데 **용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리드, 기록대상, 접촉자... 뭘 이야기하는 건지 알기 어려워요.”

“**기록할 때 자문이 많이 필요해요. 균형을 잃지 않고 우리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편협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싶어요.** 또 기록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입장이다보니 공감을 얻는 방식에 대한 자문도 필요해요. 기록단은 기준이 없는 대신 자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 그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준과 원칙이 항상 고민이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마을 어른들이 직접 마을 기억을 풀어내는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기록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에 의하든, 학업이든, 취향이든 목적에 따라 하는 일이라 별 반응이 없었는데 기록물 전시를 시장 안에서 할 때는 그 감동이 커요. 어르신들이 보이는 반응 때문인 것 같아요.

항상 기록의 대상, 개체가 되던 마을 주민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시장도 외부의 화려하고 잘 정비된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 신흥시장 같은 곳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항상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주체로 서는 일이 가능해지면 좋겠어요.**”

Case 9

행정과 시민사이

어딘가의 아카이브

프로젝트 A를 통해 민간 공동체 아카이브와 함께 서울문화재단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성북문화재단, 금천문화재단, 서울혁신센터 ‘구 질병관리본부 물품 수집 및 정리사업’²⁾,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서울시의 기관과 단체를 만났다.



1 서울문화재단의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는 ‘역사가 되는 목소리, 예술이 되는 스토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빠른 변화 속에 사라져가는 서울의 기억을 사람들의 목소리로 미래 세대에 전하고자 기획되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들의 기억과 목소리를 기록하는 ‘기억수집가’가 활동해 2,000여 건 이상의 시민들의 구술 기록과 사진이 수집되었다.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며, 기록물을 바탕으로 웹툰, 팟캐스트, 전시 ‘메모리인한강’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전시, 출판 등으로 콘텐츠화 되었다.

2 서울혁신센터의 ‘구 질병관리본부 물품 수집 및 정리 사업’은 2015-2016년 간 서울혁신파크 일대에 남겨진 도면, 서류, 물품 등의 기록을 수집하고, 관련 내용과 사진을 정리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자료 형태로 보관되어 있고, 일부 내용과 사진은 서울혁신센터 홈페이지의 역사자료실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모두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이나 사업에 따라 지역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러한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특징이 있다. 사업의 ‘아카이브’를 고민하는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야기를 모았다.

서울문화재단 메모리인서울 프로젝트의 장재환 팀장과 김효진 담당자는 재단의 조직 개편으로 사업을 주관했던 담당자가 기록물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과 폐지된 사업의 기록물을 보관한 시스템이나 사례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프로젝트의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다.

성북문화재단의 박종호 담당자는 사업마다 담당자의 방식대로 저장되어 기록의 효용가치가 없던 경우를 이야기하며 기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담당자의 역할과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서울혁신센터,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위탁운영기관들은 기록을 대하는 실무자들과 운영진들의 시각 차이,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된 뒤에 위탁운영기관의 변경이 되면 기존의 기록들이 보존·관리되기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였다.

앞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만든 담당자가 겪은 사업과 현장의 감수성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을 통해 마을신문, 팟캐스트, 영상, 구술 등 다양해지는 마을미디어의 콘텐츠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김주현 팀장과 권세미 담당자는 미팅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콘텐츠의 주제나, 지역, 단체 등의 키워드로의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 결과물 배포와 전시 등의 방법을 이야기했다. 실물 자료들의 장기적으로는 통합DB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의 마을미디어의 현황과 정보, 콘텐츠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상하지만,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마을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있으며, 센터 내의 정보자료실과 클라우드 저장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저장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공모나 지원사업을 통해서 여러 개인, 단체들과 함께 기록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기록물의 2차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초상권, 저작권 등의 문제를 말하기도 했다.



고민의 말들

“기록물을 제대로 보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 사라지는 것들이 생기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실무자들이 기록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프로젝트별로 관리하지만, 사업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담당자가 사라지면 기록도 사라진다.**” 박종호 (성북문화재단)

“**시민기록을 주고받은 사례가 별로 없다. 풀어내는 과정이나 자료를 넘길 때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나 법률자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2차 가공물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홈페이지상에 업로드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방송국이나 다큐멘터리 제작자 등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김효진 (서울문화재단)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중요한 과제는 콘텐츠 유통과 표출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콘텐츠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고. 이들이 통합돼 DB가 되어있지 않아 검색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분류할 수 있고 가치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권세미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마을미디어에는 취미활동 식의 콘텐츠들이 많다. 지역소식, 지역주민 소통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양정보로 구분한다면, 서울기록원이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은 무엇인가? 지역소식과 커뮤니티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마을미디어는 서울 차원의 기록이기보다는 서울 시민의 활동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선별해야하는지 고민이 된다.**”

김주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records

고민문장록

이번에 만난 여러 팀의 고민과 요구사항, 불안감을 모았다.
공공, 협치, 민간영역 모두 정리해서 소개한다.

Q1

담당자와 조직이 바뀌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중대형 필름은 서울시에서 따로 갖고 있다고 들었다.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의 기록물은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서울역사박물관 등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이중 서울연구원은 1·4차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 결과물로 소형, 중대형 필름과 디지털 사진자료가 있지만, 폴셋가 무엇인지 목록이 없어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점,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보니 손상이나 유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서울연구원**

지금은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에는 관심이 있지만, 질병관리본부 시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옛 센터장은 아카이빙에 반대 성향이였다. 서울혁신파크

담당자 차원에서 가장 원하는 건 그냥 넘기는 것이다. 이 사업을 옆에서 하는 걸 지켜봐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팀장님이든 저든 나가는 순간 이 사업은 아무도 모르는 사업이 된다. 시민문화팀 공공예술 담당도 없어지고 조직 개편과 함께 불안감이 크다. **서울문화재단**

이후에 후임 계획이 없다. 동(사무소)에 있는 누군가가 받아야 하는데 다들 제 눈을 피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던 폴더를 열면 전후 사정, 영수증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게 인수인계용으로 따로 정리를 해서 둘 예정이다. **최연희**

이 위탁운영기관이 바뀌면 지속가능한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 조직이 바뀌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뀔 수 있다. **금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실 민간의 희망성쇠가 크다. 단체가 활동력이 떨어진 뒤에는 자료가 사라지게 되는 거다.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데, 단체가 문을 닫으면 (기록이) 없어진다. 집중적으로 보관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금천IN**

Q2

사업담당자가 사라지면 기록도 함께 사라진다. 프로젝트 결과물만 남지,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알고 싶다). 실무자가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저장방식이 달라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효용가치가 없을 때도 있다. **성북문화재단**

인원이 바뀌다보니 힘들었다. 초창기인원이 가면 되는데, 중간중간 떨어져 나가니까 다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한다. **금천마을방송국**

기록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한다. 일상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의 관리방법이나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해방촌마을기록단**

청년허브에서 아카이브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어려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다.사실 진짜 실전, 높은 기술이 아닌 실전에서 할 수 있는 팁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금천IN**

Q3

자료 수집과 함께 ‘이용자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재가공’으로 접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콘텐츠.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다. 서울시의 마을미디어는 꾸준히 단체와
콘텐츠가 늘어간다. 여러 단체에 어떤 자료와 콘텐츠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 정보와 발간물을 공유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 좋게
되어 있지 않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통합DB)**

7-80대 금천 지역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으나 팟캐스트로 공유를 하다보니,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힘들었고 이후 활동으로 연계하기 어려웠다.
공공도서관이나 지역의 오프라인 공간에서 비치하거나 전시하고 싶은데
여력이 없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민간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편협하지 않게 기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자문이 필요하다. 표현해서 전달을 하려다보니 공감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해방촌마을기록단**

Q4

기록을 모으는
방식과 공간이
필요하다.

사진이나 영상은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 외장하드나 노트북에 가지고 있기
불안하다. 관리자 모드는 용량제한 때문에 원본 파일을 올릴 수 없다. 원본 파일이
있어야 편집해서 쓰는데 그것이 아쉽다. **주택정책과**

암전히 보관해오다가 너무 아까워서 스캔하려고 업체에 보냈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엉망일 수가 없다. 가서 확인해보니 원본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추적해서 알아보니 디카로 찍은 것을 필름으로 엮는 작업을 했더라. 해상도가 똑
떨어져서 의미가 없다. 완성본을 가지고 완성본을 몇 부 보관하라는 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해서 그렇다. **서울연구원**

서버 용량 문제나 자료를 수집하는 역량의 문제로 잘 안 되고 있다.
제휴를 한다면 기록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
이관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민간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관/공간이 없다. ‘찾기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려운’ 것이 향토 자료다. **마을인교육**

행정단위의 기록에 민간기록을 넣어서 구의 정식 위원회 형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의무적으로 만드는 게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 **금천IN**

Q5

자료의 저작권, 초상권 등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작년까지 센터에서 생산된 기록은 공공기록이니까 공유가 가능하지만,
지금 주민들과 하는 것들은 드릴 수 있는 정보인지, 동의를 얻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창신송인도시재생협동조합**

누구가 자유롭게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공익성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타겟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기록물을 게재하기 이전에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에 문제와 어떠한 자료를
올려야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관련된
교육이 먼저 있으면 좋겠다. **금천문화재단**

조합이나 관리사무소의 기록은 여럿의 기록이다. 막 없애도 되는지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있나? 몇 년간 버리면 안된다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공동의
기록물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야한다. 공동의 기록물일 때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해야하나? **서울문화재단**

Q6

기록물의

2차 저작 및 활용을 염두해두고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요즘 카톡과 밴드의 기록물을 저장하는 데 이미지 사이즈가 200kb로 줄고,
며칠 지나면 사라진다. 블로그도 며칠 지나면 다 압축된다. 나중에 인쇄용으로
쓸 만한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다. 활동하는 분들에게 그런 팁을
알려줘야 할 것 같다. **금천IN**

과정에서 생겨난 부속자료를 어떻게 해야할까? 기록물이라는 범위나 개념의
한계가 필요하다. 작년에 마을 기록 결과물로 포스터를 모아서 전시를 한 적이
있다. 밴드에 하나, 전단지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건데 전시해놓고 나면 괜찮다.
그러나 모아놓을 자료는 한정적이다. **마을인교육**

Q7

왜

기록을

남겨야하지?

사업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별, 사업별로 연계된 것이 많은데 사진 공유받기가 너무 힘들다.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검색할 때 편했으면 좋겠다. 주택정책과

기록에 관한 중요성을 가면 갈수록 느끼고 있다. 이것을 잘 기록해놓으면 나중에 누군가는 어떻게는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그런 사진 저작권이 풀려있는 것에 대한 수요가 높다. 서울연구원

기록까지는 여력이 없다. 백서를 만들고 스토리텔링북은 만들지만 개별 자료까지 남겨놓는 것은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다. 욕구는 딱히 없다. 오히려 기록으로 인해 주민들과 민감해 지거나 하는 경우가 염려될 때가 있다.

창신송인도시재생협동조합

Q8

어디까지가

‘서울의 기록(활동)’

일까?

조직체 소수의 결정에 따라. 내 자료가 영원히 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정해질 수 있을까?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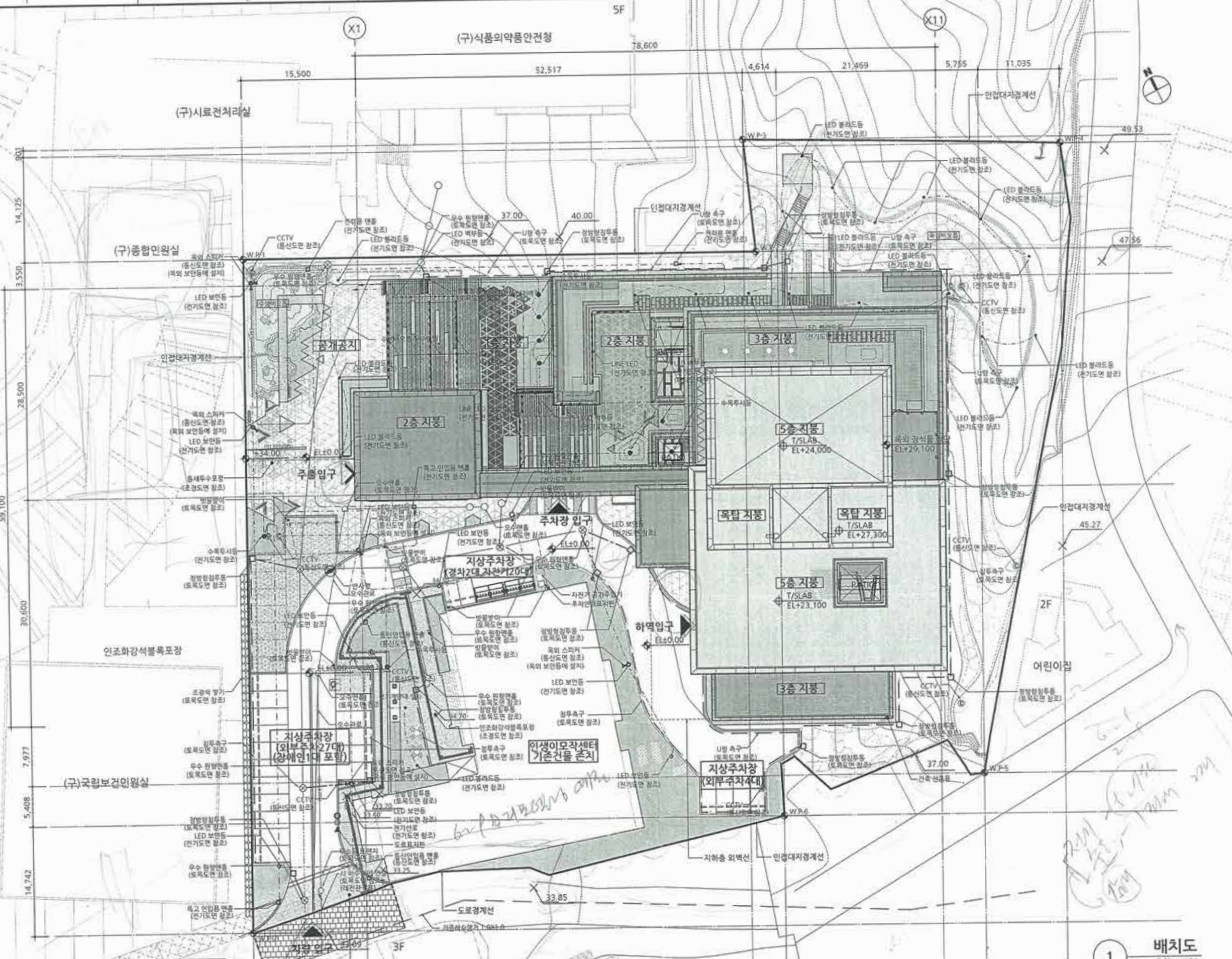
어떤 자료를 선별해야하는지 고민이 된다. 마을미디어는 서울 시민의 활동을 담는다. 지역과 커뮤니티의 소식부터 문화예술, 교양 등 너무나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실은 무가치한 게 없다. 기록물이라는 게. 범위나 개념의 한정도 뒤야할 것이다.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records



서울기록원



NOTE

1. 본 건축물 1층 바닥 마감 레벨(1ST FFL) EL+0.00은 토목측량표고 34.3M 임.
2. () 내부 치수는 실측 후 확인을 필요로 하는 치수로써, 공사 시공자는 반드시 당해 입찰대지 주변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후 확인을 거쳐 최종 건물 위치를 확정함.

수원내		
작성지	검토자	승인
작성일자	검토일자	승인일자

HAEAHN ARCHITECTURE
 (주)하에인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0 하에인빌딩 1105-013
 T. 02-556-6000 F. 02-556-6100 www.haeahn.com

(주)위드 종합건축사사무소
 WITH ARCHITECTS CONSULTANT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0 하에인빌딩 1105-013
 TEL. 02-556-6000 FAX. 02-556-6100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설계

배치도

축척
 A1: 1/250 | A3: 1/500

PI CODE	작성	검토	승인
14198	구분우	고철웅	김

1 배치도
 축척: 1/250















2016.4 2016.5 2016.6 2016.7 2016.8



2016.9 2016.10 2016.11 2016.12 2017.1



2017.2 2017.3 2017.4 2017.5 2017.6



2017.7 2017.8 2017.9 2017.10 2017.11



2017.12 2018.1 2018.2 2018.3 2018.4







Process Records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행정국장 황인식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장 원종관

주무관 박지현, 임태원

사업팀

-

수행기관 기억발전소

기획 기억발전소

집필자 전미정, 이원영

편집자 박소진, 김수진

연구자 소준철, 장대환, 박수연

사진 스튜디오 텍스처온텍스처 (신해수, 정유진)

디자인 스튜디오 패스미더솔트 (유영미, 신은혜, 최승우)

자문위원 이영남, 이현정, 안정희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아카이빙북



Process Records

2018.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아카이빙북